

천년의 법향으로 발심·깨침 이끄는 신행·문화도량

예천 용문사

“용문사에 이르니 산이 깊어서 세속의 소란함이 끊어졌네. 한 줄기 샘물소리는 가늘고 일천(一千) 봉우리 달빛이 고요하다. 고요히 깊은 반성에 잠겨지니 이미 내가 가졌던 것까지 잃어버렸다”

- 조선시대 학자 서거정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윤장대가 모셔져 있는 대장전(보물 제145호).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둘러싼 경전을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한다. 용문사에는 윤달을 앞두고 윤장대를 둘러싼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용문사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할까.”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처사님도 윤장대 둘러 오셨소?”

예천 용문사를 찾아가던 도중 만난 한 마을 사람은 문지도 않았는데 윤장대 얘기를 꺼냈다. 한국에서는 용문사의 윤장대가 유일하다고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내 주변 절경에 마음을 빼앗겨 잊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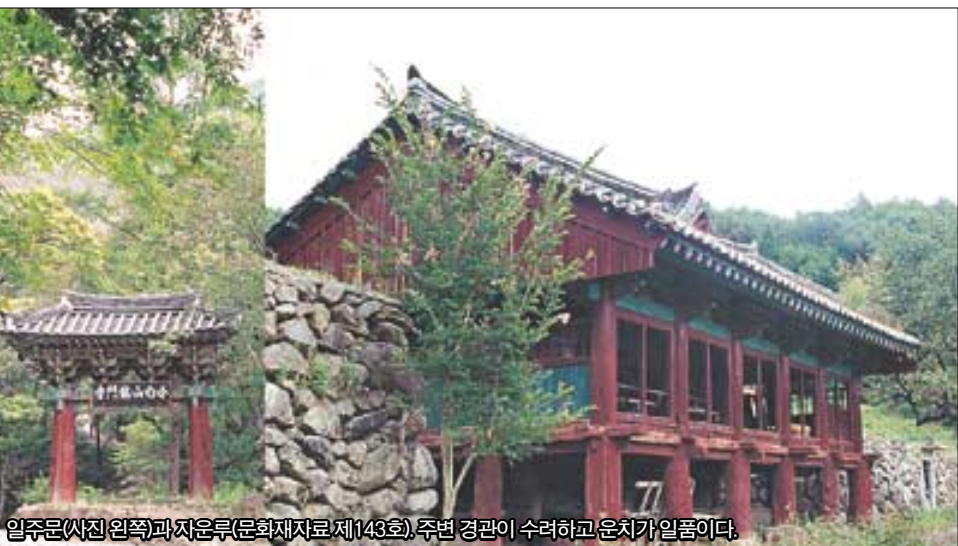
용문사에 도착하자 아늑하면서도 절경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전각들이 반긴다. 보광명전에 들어서니 세 분 부처님(주존불 비로자나불, 오른쪽 약사여래, 왼쪽 아미타불)이 그윽한 눈빛으로 맞는다.

조선시대 학자 서거정이 “용문사에 이르니 산이 깊어서 세속의 소란함이 끊어졌네. 한 줄기 샘물소리는 가늘고 일천(一千) 봉우리 달빛이 고요하다. 고요히 깊은 반성에 잠겨지니 이미 내가 가졌던 것까지 잃어버렸다”고 노래했으니, 그 정취를 짐작하기도 남을 만하다.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에 위치한 용문사. 산세가 수려하고 울창한 수림이 운치를 더해주는 주변 경관만으로도 용문사는 방문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신라시대에 개창된 이래 1천2백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오늘에 이르며 천년 고찰의 면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가히 최고의 도량이라 할만 하다.



용문사전경.



인주원(신원)과 자운루(문화재자료 제143호)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운치가 일품이다.

국내 하나뿐인 윤장대 등 국보급 성보 가득 환희심 절로 솟는 풍광... ‘삼사순례’의 중심

용문사의 역사를 보자. 용문사는 신라 제48대 경문왕 10년(870) 두운조사에 의해 개창돼, 고려시대에 들어 번창하면서 대가람을 형성했다. <중수용문사기>나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두운조사가 산의 동구에 이르렀을 때 산 정상에 바위 위에서 용이 나타나 영접했다고 해서 용문사라 불렀으며, 창건 도중 16살이나 되는 은병을 깨내 짚의 공사비로 충당했다는 기록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해 고려를 세운 후 936년(태조 19년)에 칙령을 내려 사찰을 증진토록 했으며, 고려 의종 19년(1165)에 다시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일으켜 93칸의 대찰을 이루었다. 1171년에는 태자의 태를 봉안하고 축성수법회(祝聖壽法會)를 열었으며, 1173년에는 동북면 병마사였던 김보당이 난을 일으키자 3만명의 스님이 동참하는 ‘3만승재(脩齋)’ 대법회를 열기도 했다.

역불승유의 조선시대에도 용문사는 왕실 지원을 받았다. 세종 3년(1457)에는 교지를 받아 집역을 감면받았고, 성종 9년(1478)에는 소헌왕비의 태실(胎室)을, 1783년에는 문효세자의 태실을 봉안하고 소백산 용문사(龍門寺)로 명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절경(絶景)과 오랜 역사만으로 용문사를 말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용문사에는 국보급 문화재들이 천년 역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고, 중생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될 수 있는 신행·문화도량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불교 역사의 산 교육장이자 지역불교문화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다. 말로 다

할 수 있다면 어찌 그것이 용문사의 본래면목이겠는가.

용문사에는 대장전(보물 제145호)을 비롯해 윤장대(보물 제684호), 목각좌상과 목각탱(보물 제989호), 세조의 교지(보물 제729호) 등 국보급 보물 외에도 아미타 부처님 1천 분을 모셔놓고 있는 극락보전, 고려 예종 때 건립된 자운루, 조선시대 제작된 괘불과 범종, 업경대가 있는 명부전, 안진오 스님과 권상노 박사를 배출한 영남제일강원 등 유서 깊은 전각들이 많다. 이들 문화재는 용문사 그대로가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역사적 위상과 명성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가운데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윤장대. 윤장대(輪藏臺)는 경전을 넣은 책장이 축을 달아 돌릴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부처님의 힘으로 호국을 기원하기 위해 고려 명종(1173) 때 자암 스님이 조성했다. 부처님 법이 사방에 퍼지라는 의미와 우리나라의 지세(地勢)를 고르게 해 난리가 없고 비바람이 순조로워 풍년이 들라는 의미도 함께 있다고 한다. <석문정통(釋門正統)>에는 ‘윤장대를 한 번 돌리면 경전을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기술돼 있기도 하다. 윤장대는 경전의 보관처이자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인, 우리나라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보물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윤달에 윤장대를 둘러면서 불심을 다지면 더없이 좋다고 한다. 윤달은 없던 것이 공짜로 생긴 답이므로, 윤달을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낼 것이 아니라 윤장대를 돌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죄업을 참회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선근공덕을 쌓겠다는 발심을 하면 부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주지 청안 스님으로부터 윤장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용문사를 찾아오던 길에 만난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났다. 왜 사람들이 윤장대, 윤장대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혹여 용문사 윤장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 와서 한번쯤은 보라고 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윤장대가 모셔져 있는 대장전은 용문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으로, 단층 맞배지붕의 다편계 건물로서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남향으로 정화하고 있는 법당이다. 우리나라 맞배지붕으로서 가장 균형미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려 명종 3년(1173)에 건축됐으며,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과 경판을 모셔놓아 여는 전각과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



교지(보물 제729호).



업경대가 있는 명부전 내부.



보광명전 삼존불.

대장전에 봉안돼 있는 목각탱은 속종 10년(1684)에 대추나무로 조성된 것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목각후불탱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장엄하면서도 화려해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목각탱 앞면에는 삼존목불좌상이 놓여 있는데, 사바세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인락과 평온의 극락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아미타부처님의 서원이 잘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 세조가 내린 교지(敕旨)는 용문사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경성감사와 예천군수에게 전지를 내려 절을 잘 보살피고 집역을 면제해 주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당시 송유역불 정책으로 사찰 탄압이 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왕실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괘불, 회전문, 응진전 등을 둘러보면 용문사에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용문사에서는 그렇게 천년 세월의 함성을 들을 수 있다.

용문사일기 가면 용문사를 기점으로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김유사, 대승사가 30분 이내 거리에 인접해 있어 삼사순례로도 그만이며 10분 거리에 발생지도 있다.

인터뷰

용문사 주지 청안 스님



“윤장대 돌려 업장 소멸하고 소원 성취 하세요”

“용문사는 양평과 남해에 있는 용문사와 함께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3대 용문사의 하나로 용의 심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곳 지역명이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인 것이지요.”

용문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였나를 짐작케 하는 주지 청안 스님의 첫마디는 이곳의 지역명 까지도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용문사는 과거 고려시대에는 3만승재(3만명이 모여 재를 지냄)를 열 정도의 대가람이었습니다. 또 근세에는 윤하 스님이 주석했던 영남 제일강원이었지요.” 이어진 스님의 말씀에 용문사의 장대한 역사가 드러났다. 장대한 역사를 가진 고찰이기에 용문사에는 대장전, 자운루, 목각좌상 및 목각탱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가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전을 보관하는 회전식 팔각 윤장대다.

“이렇게 좋은 산 좋은 문화재가 있음에도 그동안 내륙오지에 위치해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는 스님은 용문사에 온 98년부터 법당을 비롯해 대장전, 진영당, 자운루, 명부전, 응진전, 동양각의 보수작업을 하나씩 마쳤다.

특히 대장전은 문화재 전문위원과의 수많은 회의와 고증을 통해 주춧돌까지 들어냈다가 다시 복원하는 대대적인 보강작업을 하고 작년 10월에 다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이에 따라 윤전법회를 다시 병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윤전법회를 병행해 불자와 일반인들이 윤장대를 직접 돌려볼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이제는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전국 어디서나 오기가 쉬워졌습니다. 대구에서는 1시간 반 서울에서도 2시간이면 올 수 있게 되었지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윤전법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스님에게 중앙고속도로 개통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0년부터 구상중인 템플스테이를 위한 요사채 불사 건립 추진과 함께 강원 개설로 과거 영남제일강원의 면모를 되찾기를 바란다”는 스님은 최근 용문사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자치단체로부터 개발비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님의 행보는 더욱 바쁘게 움직인다. 과거 찬란한 대가람의 면모를 되찾고 새로운 불교문화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용문사 가는 길

- 버스: 동서울터미널 출발 (06:40~18: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예천 하차⇒택시(20분)
- 승용차: (서울)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예천IC (부산)경부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예천IC (대구)중앙고속도로⇒안동⇒예천IC
- 전화: (054)655-1011, HP 011-336-4665

